

'진영싸움'에 20년 표류한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특혜 시비 등 발목 '민주유공자' 법적지위 요원 대상자 축소 불구 일각 냉대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보훈대상으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이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일회성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만 이뤄졌을 뿐 법제화를 통한 '민주유공자'라는 법적 지위는 얻지 못했다.

정치권의 '운동권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열사와 유족들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발의·폐기 이어져

10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등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 전인 1998년 제15대 국회부터 10차례 넘게 발의됐지만 계속해서 폐기됐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민주유공자로 인정하고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1960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각각 862명, 4400여명은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등 이외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분류돼 명예회복 조치와 일회성 보상만 받았다.

이들에 대한 입법 여부는 현 정부에서도 야당의 '운동권 특혜' 비판에 막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진영 싸움의 벽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의 모친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한열 열사의 모친 고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계속된 '특혜 지적'

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유가협 측은 1960~1990년대 민주화운동 참가자 중 사망자와 장애 등급이 부여된 부상자 등 800여명이라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앞서 지난 2020년 9월 23일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됐다.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에서 예우 대상자 사망, 행방불명, 장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특혜 지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3월26일 설훈 의원 외 7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부상자와 더불어 유죄 판결자도 포함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역시 '셀프 특혜'라고 지적했고 설 의원은 같은 달 30일 법률안을 철회했다.

야당의 '셀프 특혜' 지적과 함께 '민주유공자법은 이른바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의 자녀에 대한 입학·취업 특혜다'는 지적도 제정을 향한 발을 묶었다.

장두영 유가협 사무국장은 "이 법안의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부여된 부상자를 포함해 800명 수준으로 전체 유공자의 0.1% 수준"이라며 "20대 대학생일 때 사망한 이들에게 자식이 어디 있겠는가. 유일한 예우대상자인 희생자의 부모 역시 고령이거나 제대로 예우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분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유족 '바라는 것, 그저 명예회복'

장 사무국장은 "배은심 여사님의 빈소에 현 대통령과 대선 후보 등이 방문한 것

은 반가운 소식이다"면서도 "단순히 돌아가셔서 '안타깝다', '비통하다'가 아닌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유공자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도 불분명한 위치에 있다. 법 제정은 이들을 떳떳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나 금전적 보상이 아닌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한열 열사의 경우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 해도 유족(부모)이 사망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된다 한들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남은 유가협 회원 역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유가협 회원들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의 지적 사항인 '자녀 혜택' 등은 맞지 않다.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슬하에 자녀가 있는 유공자가 별로 없어 특혜를 받을 만한 자녀도 극소수다"며 "당내 분위기로 보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지만 야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영 내 논쟁이 심해서 단일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유공자 자격 받으려고 운동을 했다' 등의 평가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한다"며 "유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주류역사로 그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민주화운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야당의 반대 이유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

배은심 여사 빈소 찾은 정치권, 민주유공자법 제정 '한목소리'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10일 고(故) 배은심 여사의 빈소를 찾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배 여사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 전 대표는 배 여사가 생전 염원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은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그에 합당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빈소를 찾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가 확고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 같은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를 이루는 데 헌신했던 많은 민주열사들, 동지들의 예우를 위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권 대선 후보들도 빈소를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 약속을 거듭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빈소를 찾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1인 농성을 계속하고 계셨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민의당 저와 면담을 진행했었다"며 "국민의당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약속을 했었고 어머니가 거기에 희망을

품으셨는데, 그 희망을 꼭 지켜드리고 싶 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이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배은심 여사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 여사의 염원이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뜻을 받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쿼!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쿼!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쿼!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일일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이지동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들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애니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애니로마트 062)373-3235	애니로마트동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